



9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가족들과 공유하세요!

- 9월부터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보육료·양육수당 온라인 신청제가 실시되며 원할 경우 기존과 같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복지부가 발표한 2011 하반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항목 중 10월부터는 장루·요루 환자(장애인)의 재료대 구입 시 본인부담률이 현행 30~60%에서 20%로 낮아지고 노인층 환자가 주인 골다공증 치료제의 보험급여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10월부터 기존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개편된다. 기존 활동보조에 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이 추가되어 서비스 내용이 확대되고 대상자도 '10년 3만명에서 5만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병원제도도 10월부터 시행된다. 관절, 대장항문, 심장 등 9개 질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등 9개 진료과목이 대상이 된다.

아울러, 신종마약류의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는 9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마약류 등록에 필요한 수개월간의 지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신종 환각물질이 이미 확산된 뒤에 단속 근거가 마련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동네 좋은 어린이집 찾기」 스마트폰으로 쉽고 빠르게!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부모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9월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우리 동네 좋은 어린이집 찾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 동네 좋은 어린이집 찾기」 어머들은 영유아의 부모가 주로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의 정보를 제공하여 어린이집 선택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사용자 주변에서 밍고 말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및 평가인증 우수 어린이집(평가인증 점수 90점* 이상)을 '추천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특정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보고자 하는 경우 편리하도록 지도·위성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으며, 보육 관련 콘텐츠도 일부 제공한다.

「우리 동네 좋은 어린이집 찾기」 어플은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용 2종류가 제공되며,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해 연결되는 관련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대상포진’ 면역력 약한 시기를 노린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4년간(2006~2010년)의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하여 ‘대상포진(B02)’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6년 34만명에서 2010년 48만명으로 4년간 약 14만명이 증가(41.1%)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9.0%로 나타났다. 총진료비는 2006년 272억원에서 2010년 444억원으로 4년간 약 172억원이 증가(63.1%)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13.0%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여성은 72,324명으로 전체 여성 진료인원(288,315명)의 25.1%를 차지하여, 여성 대상포진 환자 4명 중 1명은 50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포진의 진료인원을 월별로 분석해 본 결과 기온이 높은 7~9월에 진료인원이 많았으며, 8월에 연중 최고 수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연령별 분석결과 2010년을 기준으로 50대(23.3%)가 가장 많았으며 60대(18.0%), 40대(17.4%)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포진이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보통 소아기에 수두를 일으킨 뒤 몸속에 잠복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대상포진이 발생하면 보통 수일 내에 피부 발진과 특징적인 물집 형태의 병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해당부위에 심한 통증과 감각 이상이 동반된다. 대부분의 경우 증상은 피부에 국한되어 나타나지만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사람의 경우 전신에 퍼지게 되어 위험할 수 있다. 대상포진의 예방법은 평소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영양가 있는 식단을 유지하여 면역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결핵퇴치를 위해 세계적인 결핵 전문가 한자리에

● 질병관리본부는 8월 25일(목)~26일(금) 오송생명과학단지(후생관 국제회의실)에서 세계적인 결핵 전문가를 초청하여 「결핵조기퇴치 국제 전문가 회의(International Review Meeting on New 2020 Plan for TB Elimination)」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국내 결핵 전문가는 물론 WHO(세계보건기구), CDC(미국), IUATLD(국제항결핵및폐질환연맹), JATA(일본, 국립결핵예방협회)등 세계적인 결핵 전문가가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전병을 본부장, 서울아산병원 심태선 교수(국가결핵전문위원회 위원장), 전남대학교 권용수 교수, 결핵연구원 김희진 원장, 질병관리본부 이종구 前 본부장, 결핵연구원 김상재 명예원장 등이 참석하여 국가결핵관리정책 등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함께 진행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가적 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결핵발생률을 낮추고자 「결핵조기퇴치 New 2020 Plan」을 마련한 바, 이번 회의를 결핵조기퇴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이자 밑거름으로 삼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밝혔다.